



공학도들이! 정신 차리자!

글_이창건 한국전력기술기존위원회 위원장 changkunlee@hotmail.com

공학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베르디의 가곡 리콜레토에 등장하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하양상 변하는 여자의 마아움...”을 떠올리게 된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공과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누구나 희망에 차 있어서 하늘은 푸르고 새들의 지저귀는 축복의 송가(頌歌)처럼 들렸었는데, 이제는 찬 바람에 우박이 쏟아지고 멀리서 구슬픈 노랫 가락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마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의 변덕스러움 같은 세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상봉가를 치던 우리의 가치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밖에서는 변화가 많았는데 안에서는 그것에 대비를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바람이 세어서가 아니라 밑동을 벌레가 먹었거나 썩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외부변화에 대비해 자신이 선제(preemptive) 개혁을 게을리하였음을 자각하고 지금부터라도 궤도수정과 자가 충전에 힘쓰는 것이 해결책이고 정도이다.

공대생의 자부심?

서울대학에 입학한 후에 겪었던 일이다. 총소리가 울리자 단과대학별 육상선수들이 일제히 뛰어 나갔는데 선두는 갈색 피부에 체격 좋은 농대생이고, 둘째가 사범대생 그리고 아마도 셋째가 꺾다리 공대생이었을 것이다. 운동복도 입지 않고 긴 바지를 걷어 올린 채 풀피에서 맨발로 뒤쫓고 있는 자는 분명히 법대 선수였다. 그런데 여학생들의 함성과 박수와 딱딱이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이상한 멘트가 법대 응원석에서 울려 나왔다. 그들은 나발을 불고 북을 요란하게 치더니 스피커로 크게 방송하기 시작했다. “지금 100m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는 선수는 단연코 법대의 김○○군입니다. 맨 앞에서

질주하는 저 늙은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 법대생 장하다. 법대선수 이겼다... 쿵쿵 쿵쿵!”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해 보았다. 누가 보아도 선두주자는 다른 단과대 선수인데 장내를 압도하는 마이크에서는 법대생이 1등이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식으로 우겨대고 있었다. 그들은 사실과 내용에 상관치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만을 일삼고 또 판정도 그렇게 내리는 것이다.

공과대학 응원단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데도 종합순위 1위를 놓친 것이 너무 분해 폐회식 후에는 말없이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무심코 들여다본 선술집 안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손님들은 바로 운동장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그 법대 응원단원들이 아닌가? 경기에서 꼴찌만 하던 그들은 폐회식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곧 바로 술집에 온 모양이었다. 그들에게는 종합 성적 따위의 자질구레한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법대생들은 패배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시시하고 불리한 과거지사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들에게는 바로 여기와 지금(hier und jetzt)이 최대의 관심사이고 선결 문제인 것이다.

공대 출신들은 우리의 경제개발이 그간 기술을 제공한 엔지니어의 공로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인문사회계 인사들은 기술은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고, 남들이 눈부신 경제 성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행정관리의 미래지향적 계획 수립과 올바른 방향 설정 및 순발력 있는 기업가의 왕성한 성취욕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공장장도 경영학과 출신이 말아야 한다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다. 즉 엔지니어는 이 도령과 성 춘향의 주역 연기를 위한 방자나 향단이 같은 조역 밖에 못 맡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다. 공대 출신은 문제의 본질파악과 방향제시나 대책 강구보다는 지엽적

인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즉, 총론이나 결론 도출에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각론에 매달려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열 출신은 “어제 저녁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하는데, 엔지니어는 술집 위치와 이름, 참석 인원, 술의 종류와 수량, 술 따르는 아가씨의 생김새, 기타 부수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려고 지루하게 설명한다. 흠뻑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데도 자꾸 옆길로 새나가 소수점 이하에 빠져 헤어날 수 없으니 요령이 없다는 평을 듣고 답답하고 재미없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그런 공대 출신이 험난한 세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나열해 보기로 한다.

전문지식과 화합과 절충의 도사가 되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여자의 옷을 마음대로 벗긴 다음 만지고 싶은 부위를 마음대로 만지는데 많이 만져줄수록 여자가 자꾸 찾아오고 나중에 그녀를 좋아한다는 남자까지 쫓아와 돈을 두둑이 내놓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내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라 부른다. 엔지니어의 경우는 물건을 만지되 그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변화시켜 쓸모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 동료들과 팀을 짜기도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히 인간관계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된다. 법대출신들은 사람과의 부딪침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이 문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출세가 빠르다. 우리 모두 전공분야에서 타이거 우즈나 박 세리처럼 되어 항상 버디와 이글을 기록할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경쟁회사에 스카우트 당할까봐 기업주가 눈치 볼 정도로 스스로의 기량을 갈고 닦아 놓아야 한다.

일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려면 남들보다 전문지식이 많고 넓고 깊으면서, 최신의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또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겸손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희생과 봉사와 겸손에 관한 한 자신 있다고 대답할 공학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이다. 우리 각자는 술선수범과 절충과 봉사와 화합에 관한 한 모두가 도사가 되어야 한다.

뻥뻥스러워져야 한다

엔지니어는 권력가나 부자 밑에서 기술이라는 밑천을 제 공하고 떡고물을 얻어먹는 약자이며, 자기가 지닌 전문가로서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날엔 가차 없이 쫓겨나게 마련이고 잘 해야 명예퇴직이다. 그리고 돈 가진 자에게 모욕당하고 권력아부배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면 마음 약한 엔지니어는 너무 분해 밤마다 잠 못 이루게 된다. 그러면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위에선 신물이 올라와 건강을 해치게 되니 결국 자기만 손해 보는 것이다. 남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제아무리 괴롭혀도 정신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술 안 마시고 수면제 도움 없이도 잠잘 수 있는 체질개선을 도모하려면 얼굴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깔고 최대한의 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나는 여러분들에게 샤워할 때마다 옷어 보자고 제안해 본다. 샤워의 물줄기 하나하나가 횡포를 일삼는 자들이 내뿜는 침방울이나 손가락질이라 해도 의적이 옷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달관의 경지에 이른 것일까? 또 그 얼마나 뻥뻥스러운 배짱의 소유자일까? 40대의 한국 남자 사망률이 여자의 3배에 이르고 특히 중장년 엔지니어의 높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인위적으로 웃는 연습을 하자. 모두가 ‘뻥뻥씨’로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품종개량을 도모함으로써 생존경쟁의 터전에서 적자로 승화하자.

미켈란젤로의 요령을 익히자

미켈란젤로가 중세의 강력한 도시국가인 피렌체 공화국의 청탁을 받고 일할 때 그 공화국의 대표적 권력 아부배인 피에로 소데리니 장관에게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받았다. 소데리니는 역대 교황, 특히 우르바노 8세에게 아침을 아주 잘한 덕에 피렌체 시장을 오래 해 먹었는데 한마디로 그는 자전거 잘 타는 명수였다.

세도가 앞에선 손바닥이 닳도록 비비며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아랫것들에겐 무례하게 굴며 무자비하게 짓밟는 자를

독일에선 라드파러(Radfaher)라 한다. Rad는 자전거이고 faher는 타는 사람 즉 자전거를 멋지게 타는 자를 말하는데 미켈란젤로는 바로 소데리니의 자전거 페달 밑에 걸려들었던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세기적 작품인 다비드상(像) 조각을 거의 마무리지었을 때 난데없이 소데리니가 나타나 자전거 선수다운 횡포를 일삼았다.

예술 감각은 전혀 없고 더욱이 조각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르는 작자가 권력을 등에 업었다 하여 완성 단계에 이른 작품의 코가 크다며 깎아 내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겠는데, 그것은 “당신이 미켈란젤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물음이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치사하고 더러운 놈,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침이나 잘 한다고... 이렇게 짓밟기나...”라는 생각으로 작업도구를 팽개치고 자리를 뜨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사표를 내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엔지니어와는 달리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식하고 어이없는 지시를 받은 미켈란젤로는 유식하게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망치로 끝을 때리면서 코를 깎아 내렸고 망치를 휘두를 때마다 대리석 가루가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는 “이만큼 깎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여 고치려던 참이었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깎고 보니 이제는 아까보다 훨씬 멋있게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무식한 사장은 “아, 이제는 됐소. 내 마음이 흡족하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바닥에서 슬며시 대리석가루 한줌을 쥐고 사다리에 올라가 망치로 끝을 때릴 때마다 속임수로 돌가루를 조금씩 흘렸던 것이다.

그런 요령과 융통성이 없었더라면 그는 질투심에 불타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모함으로 베드로 성당의 그림도 그릴 수 없었을 뿐더러 아마 누명을 뒤집어쓰고 유배되고 말았을 것이다.

무식하고 돈 많은 자나 어깨에 힘주는 우둔한 권력자와 싸우다가 밀려나는 것은 엔지니어의 소신이나 배짱이 아니라 무능의 소치요 융통성 결핍과 설득력 부족 때문이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옮겨 오되, 존경심과 감사라는 양념까지 넣어서 가져오게 만드는 기법이야

말로 최고급 엔지니어링이다.

발표력을 키우자

아는 것은 많으나 남에게 설명하는 기법이 시원치 않아 항상 손해 보는 것이 공학도이다. 우리도 스피치 기법을 익히고 수사학도 공부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MIT에는 기술 작문과 스피치를 가르치는 교수진이 29명에 이른다. 발표력이란 결국 ‘포장 공학’이 아니겠는가? 간단명료하고 함축적이고 인상 깊게, 그러면서도 멋지게 설명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시인이 많이 노력하고 적은 분량만 발표하고도 자족하는 것은 작품의 질에 만족하는 까닭이고 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보고서와 제안서를 시처럼 간결하고 멋지게 작성하는 요령을 익혀야 할 것이다.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 반대로 이공계 출신들은 뻘뻘한 내용을 힘들고 어렵게 설명하니 답답하던 얘기를 듣게 된다. 미 행정부에서 ‘클린턴 양식’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한 양식이란 뜻이었다.

내가 자랄 때는 손님에게 “많이 드시라”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님의 국그릇에 고깃덩어리를 여분으로 넣어 주어 정성을 표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통할 일이다. 지금은 “맛있게 드시되 살찌지 마시오”라는 것이 인사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학도의 보고서도 이제는 남들이 볼 때 맛있고 멋지다는 생각이 나도록 작성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리더십을 발휘하자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도 힘들지만 남을 제대로 부리는 능력을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리더십은 선천적이 라기보다는 훈련과 노력으로 개발되고 다듬어질 수 있는 후천적 요소가 많다. 부하와 동료들 기분 좋게 해 주면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기법이야말로 우리가 습득하고 지녀야 할 자질이 아닐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그들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자세(易地思之)를 가질 필요가 있다. 윗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덕을 쌓고 지식이 뛰어나고 생활도 깨끗하고 검소해야 한다. 특히 공공엔 결코

손대선 안 되고, 돈은 머리를 써서 정당하게 벌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후배들에게 명령조로 강조하고 싶다. 양심을 전당포에 맡기거나 팔아먹어선 안 된다. 정직이 생명이다. 도덕적 GNP 값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도둑질하면 결국은 세상이 다 알게 된다(天知 地知 與知 吾知). 윗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렴결백과 성실성이 선택과목이 아니라 학점이 큰 필수과목임을 알아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군집생활을 하는 얼룩말은 먹이를 찾아 계절 따라 이동하며 도중에 강 건널목을 굽주린 악어떼가 지키고 있으면 얼룩말 무리는 주춤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악어떼가 물러서지 않으면 얼룩말 리더가 물속에 뛰어 들어 악어떼를 탄 곳으로 유인하는 작전을 써보지만 대개는 희생되고 만다. 그러면 얼룩말 무리는 지도자가 물속에서 쫓고 쫓기다가 희생되는 시간을 이용해 강을 건넌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얼룩말처럼 악어떼에게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무리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의 위아래를 미리 실사해 두었다가 보다 알고 안전한 목으로 희생 없이 무리를 건너게 하는 준비된 지도자가 되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언제 동남풍이 불 것인가를 미리 알아 놓았다가 중요한 시기에 제사 지내는 형식을 취한 제갈공명의 전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토머스 카릴의 '영웅숭배론'에선, 평면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외모가 거의 같아 보이나 생각만은 남달리 입체적이어서 중요할 때 하늘에서 영감을 끌어 들이는 인물이 진정한 영웅이라 했다. 리더십이란 능력과 헌신과 도덕성의 합계 또는 곱한 값으로 나타난다. 일이 안 풀린다고 고층건물에서 뛰어 내려선 안 된다는 얘기다.

산과 숲을 보자

우리는 마이크로 분야는 그런대로 안다고 자부하나 매크로 견해는 인문사회계 출신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잎과 가지와 뿌리에 집착하느라 숲과 산 모양을 못보고 작은 일에 고집 피우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묘사한 것이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였다. 포로로 잡힌 영국 공병들이 다리건설공사라는 공학적 과제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이 적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

해서는 전혀 인식치 못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다. 전투는 괜찮게 하는데 전술이나 전략면에서는 빵점이라는 이야기이다. 줍살영감(micro-manager)이란 말을 듣지 말고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줍살영감이 거느리는 조직에서는 생산성과 품질과 업적이 아주 나쁘고 사기가 밑바닥이라는 것이 대부분 경영진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익을 좀먹거나 자기고집에 권위의 옷을 입혀 직원 위에 군림하지만 않는다면 매크로 매니저로 향하는 길에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갈공명은 중국 대륙을 셋으로 나누어 상호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큰 틀을 짜 일단 뜻을 펴긴 했다. 제갈공명은 절대군권을 행사하는 야전사령관 생활을 28년이나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돈 한 푼, 명주 한 필도 갖지 않는 깨끗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후계자를 양성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혼자서만 계획하고 결정하던 위인이 사라지니 나라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양성에도 힘써 당대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대비하게 해야 한다.

공학도의 안목은 나뭇가지나 잎에 머무르는 데 반해 법률가들은 경우에 따라 숲과 산줄기까지도 포괄적으로 볼 줄 알고 발상의 전환을 잘한다.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각기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로 고집부리며 오신각신하게 되면 적절한 타협안과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 결론을 도출토록 유도하는 일은 언제나 그들이었다. 즉, 시야가 좁은 과학기술자들의 해결사 구실을 변호사가 하는 것이다. 미국 아이비 리그가 지향하는 것은 선량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명예로운 신사 그리고 솔선수범할 줄 아는 지도자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공학도들도 재주 많고 지식이 풍부한 기술자의 경지를 뛰어넘어 필요하다면 자신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영예롭고 통이 큰 지도자를 지향하고, 잎이 아니라 숲과 산을 그럴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매크로 매니저가 되도록 판을 크게 짜자. 공익에 자발적으로 이바지하고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중히 여기는 양반이 되자는 것이 선배들의 간절한 요망사항이다.

시간을 관리하자

1년은 8천760 시간이지만 그 중 월급받기 위해 쏟아 붓는

시간은 약 2천 시간, 즉 22.8%이다. 뜻밖에도 '이불 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3천 시간으로 34.2%나 되고, '먹고 마시는' 데 1천 시간, '왔다갔다' 하는 데 1천 시간, 그리고 나머지 1천 760시간은 아무 것도 못하고 '호지부지' 낭비해 버린다. 그런데 연중 2천 시간만 일하고 마는 사람은 발전성이 없어 결국 평범한 월급쟁이로 있다가 언젠가는 정리해고를 당하고 만다.

직장에서 2천 시간 일하는 것 이외에 자기 계발을 위해 시간을 얼마나 더 짜내느냐가 본인의 앞날과 가치를 결정지을 것인데 연간 500시간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만 1천 시간을 염출해 내려면 비장한 각오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가령 시간 다소비성 오락에선 손떼야 하고, 상가에는 꼭 가나 결혼식엔 봉투만 보내고 남보다 30분 먼저 집을 나서고 두 시간 늦게 퇴근하며 주말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불 속 시간, 먹고 마심, 왔다갔다, 호지부지하는 데서 시간을 짜내서 창조적으로 활용하도록 일상생활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0년간 한 분야에 매년 1천 시간을 여분으로 집중 투입하면 자기 분야에서 한국 정상에 오를 수 있고 20년간 지속하면 세계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맛있는 것(sweet)만 먹이지 말고 땀 흘리고(sweat) 머리를 써서(smart)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을 영위하자고 독려해야 한다.

직장인이 신입사원일 때는 훈련 받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그 후엔 일하는 시간이 많아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다가 관리직에 오르면 너무도 많은 회의와 교섭, 면담과 출장, 파티 등으로 그간 충전되었던 지식은 거의 소진되어 버리고 명령만 내리고 결재하는 것이 특기로 되고 만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기업 오너가 아닌 이상 고물딱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사표 내라는 압력을 받게 되고 잘 해야 명예퇴직이다.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근무시간 외에 남몰래 특수 분야 개발에 이바지하여 자기가 회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신분상승을 기함으로써 몸값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사주나 경영진이 찾아와 제발 더 있어 달라고 애걸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유비를 세 번이나 찾아오게 만든 제갈공명의 능력이었다. 누구나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인 2천 시간 이외의 시간발굴과 그 활용이 창조적으로 짜여지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꿈을 품고 희망을 갖자

우리에게는 시인과 작가에게처럼 꽃다발을 선사하는 소녀들도 없고, 음악가나 예술가에게와 같이 박수부대도 몰려 오지 않는다. 또 오빠부대도 없다. 의과대학과 사대출신들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존경을 받지만 우리는 쟁이라고 불리다가 성수대교가 내려앉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가스폭발사고가 나면 쇠고랑차기 일쑤다. 또 뼈 빠지게 일하기는 마참가지인데 변호사처럼 착수금도 사례금도 챙기지 못한다.

특히 차이코프스키에게 창작활동과 생활에 보태 쓰라고 매달 분홍빛 편지와 함께 거액을 남몰래 보내주는 멋쟁이 백작부인이나 돈 많은 과부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무리가 분명히 있다. 이 나라의 장래와 우리 민족이 그들이다.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 않고선 경제성장도 사회 안정도 기할 수 없고 나아가 남북통일 후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2천 300만을 헤아리는 복讎 땅의 굶주리는 동포들의 생계도 돌봐주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 각자는 작은 빌 게이츠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뛰어야 한다.

이 나라 산업이 건전한 후자경영의 바탕을 구축하려면, 전 산업계가 고부가가치의 구조로 탈바꿈하려면, 선진공업국 대열에 하루 빨리 진입하려면,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몇몇한 터전을 물려주려면... 생산성 제고와 기술향상과 신기술 창출이라는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북치고 나발 불며 마이크 잡고 소리높이 외치는 법대 출신도, 존경받는 선생님들도, 더욱이 유부녀의 가슴에 못을 박아 밤마다 그녀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나비넥타이 맨 사나이도, 오빠부대를 끌고 다니는 운동선수들이 할 일도 아닌 것이다. 그 못을 담당할 자는 오로지 우리다. 엔지니어다. 바로 공대 출신인 것이다. 그것도 이 자리에 오신 선택받은 공학도들이다. 공대 출신이여, 정신 차리자! ㊦